

# 커버스토리

## 임상 빅데이터로 겨뤄보자!

### 의사-데이터과학자가 함께하는 KOREA CLINICAL DATATHON 2019



“대회를 통해 구축한 모델에 대해 논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저희 모델이 환자의 생존율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배정된 멘토 분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Medical Big Data Start-Up 창업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했던 대회 중 진행과 구성 수준이 가장 높았던 데이터톤(Datathon)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의사, 데이터과학자, IT 전문가, 학생 등이 모여 의료 빅데이터로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코리아 임상 데이터톤 2018(KOREA CLINICAL DATATHON 2018) 참가자들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의료 빅데이터, 특히 임상데이터의 가치를 체험하고 의사와 데이터 과학자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해 임상연구의 품질 향상과 신약 개발 등의 산업적 활용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KOREA CLINICAL DATATHON 2019' 가 개최된다.

데이터톤(Datathon)은 '데이터(Data)'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데이터를 활용해 마라톤을 하듯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현안 해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해커톤(Hackathon) 방식의 경연 대회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과 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이 공동 주최하고 KoNECT,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아주대학교의료원,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 후원할 예정이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무박 3일간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개최되며, 참가하는 임상 의사들이 준비한 임상적 문제들을 AI 및 머신러닝 등의 기술로 풀게 된다. 임상 의사, 임상시험 연구자, 데이터과학자, IT 전문가, 학생 등이 한 팀을 이뤄 임상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해답을 찾아감으로써 의료인과 데이터과학자의 협력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에 MIT 가 제공한 익명화된 중환자실 데이터 MIMIC-III(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 III) Dataset 과 함께 국내 임상 빅데이터인 서울대학교병원의 VitalDB, 아주대학교의료원의 CDM(Common Data Model) 도 dataset 으로의 시험대에 오른다.



# 커버스토리

또한 대회 기간 동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Oxford, 홍콩대 등에서 지원한 멘토들의 팀별 멘토링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 참가 희망자는 'KOREA CLINICAL DATATHON 2019' 공식 홈페이지(<http://datathon.konect.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회에 앞서 8월 31일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임상 의사와 데이터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비의료인들은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임상진료 빅데이터의 가치를 경험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진료 및 임상연구의 품질향상과 신약개발 등의 산업 발전, 임상 데이터 과학자 양성 등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eo Anthony Celi, MD, MS, MPH  
Clinical research director at MIT



Mengling Feng, Ph. D  
Assistant Professor at NUS



Ngiam Kee Yuan  
CTO of NUHS



Kenneth Paik, MD  
Research Scientist at MIT



Dominic C Marshall, MD  
Clinical Fellow at Oxford



Gloria Hyunjung Kwak  
Research Assistant at HongKong univ

